

경부 원발부불명 전이성 암의 치료결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정광윤 · 팽재필 · 조성동 · 임기정 · 김은중 · 박지훈 · 최종욱

배경 및 목적: 경부에 발생한 원발부불명 전이성 암은 경부 악성림프절 전이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발병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0~71%로 진단 방법과 치료에 논란이 있다. 저자들은 경부에 발생한 원인부 불명 전이성 암으로 진단된 경우 진단적 접근방법과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9년 부터 1999년 까지 경부 원발부 불명 전이성 암으로 진단받은 20례, N1 2례, N2 12례, N3 6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진단 방법, 원발병소 유무, 일차적 치료방법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 원발병소가 확인된 경우 추가치료 여부와 치료결과 를 분석하였다.

결 과: 20례중 내원 당시 18례에서 세침흡인생검, 5례에서는 절제생검, 2례에서는 절개생검술을 시행하였는데 편평세포암종 15례, 선암종 4례, 미분화암종 1례였다. 추적관

찰 중 3례에서 원발병소가 확인되었고 원발 병소는 성문상 부 1례, 후두개곡 1례, 전립선 1례였다. 치료는 20례중 수 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합한 경우가 15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합한 경우 2례,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 선치료를 병합한 경우 2례, 수술만 시행한 경우 1례였다. 원발병소가 확인된 3례 중 2례에서 원발병소에 대한 추가 치료를 하였다. 추적관찰 결과 3년 생존률은 20%, 5년 생 존률은 4.7%였다.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병합치료를 받은 15례의 3년 생존률은 46.6%였고 그 외 5례의 3년 생존률 은 0%였다

결 론: 경부에 발생한 원인부불명 전이성 암은 진단시 두경부 이외의 발생 가능한 부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 요하며 적극적인 수술과 원발병소로 예상되는 모든 두경부 영역의 점막을 포함한 방사선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지만 예후는 불량하였다.